

인터넷과 집단행동 논리*

올슨(Olson)의 집단행동의 논리를 중심으로

정연정
숙명여자대학교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인터넷 시대의 집단행동의 실체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과 올슨의 집단행동이론을 접합시키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맨서 올슨의 집단행동의 주요 개념, 예컨대 무임승차, 선택적 인센티브를 통해 설명되어지는 집단의 형성과 유지와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며, 인터넷은 이러한 개념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등의 문제가 필자의 주된 관심사이다.

우선 인터넷은 집단형성의 비용을 낮추고, 무임승차자를 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형성의 문턱은 점차 낮아졌고, 집단형성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거대한 집단의 딜레마 즉, 올슨의 이론대로라면 형성조차 불가능한 집단들은 인터넷을 통해 비로소 빠르게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집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새로운 회원을 충원하거나,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넷은 무임승차자들을 감속하고 이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집단 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회원 개인들이 참여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을 확장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집단유지에 있어 기존 회원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회원

을 충원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새로운 회원을 충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물질적, 사회적)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충원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은 자유로운 집단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집단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올슨이 주장하는 집단간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추인 하는 집단행동의 제 문제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집단형성과 유지에 있어서도 회원충원은 물론 기존의 회원을 유지하여 집단 그 자체를 유지해 가는 것이 더욱더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올슨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상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다. 집단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기술 자원이 이러한 집단행동의 논리에 미치는 영향을 상정하기에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올슨이 생각하지 못했던 인터넷이 시대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기술이 어떻게 집단행동을 더욱더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계속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 주제어: 인터넷, 무임승차, 집단행동, 올슨, 참여

* 논문에 대해 한국정치학회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월드와이드웹(WWW: World Wide Web)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즉 WWW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함으로써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WWW로 인해 이루어진 인터넷의 대중화 현상은 개인의 삶과 개인과 관계하는 정치·경제·사회 제 영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제 연구들이 정치학의 영역에서도 출현하기 시작했다. 변화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비관적 회의가 학술적 연구들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가치판단보다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작업은 기존의 정치학 관련 이론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인터넷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시대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괴물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고 있다.¹⁾ 따라서 기존의 방법론이 인터넷을 설명하는 작업이 현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경험이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오프라인의 경험과 얽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인터넷과 정치적인 것을 설명하는 이론의 접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과연 기존의 정치적인 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어떻게 인터넷과 연결된 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효한가 그리고 인터넷은 이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도록 자극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맨서 올슨(Mancur Olson)의 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에 대한 이론을 통해 인터넷을 조망한다. 개인의 참여, 집단의 형성, 유지를 설명하는 올슨의 전통이 어떻게 인터넷 시대에 재해석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쟁점을 우리에게 남겨놓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는 합리적인 개인이 집단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 공공재(public goods)를 집단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집단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착목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개인은 물론 개인의 집단행동 그리고 그러한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집단의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Chung 1999; Boncheck 1995; Lee 1998; Li 1990 Sproull & Kesler 1993). 정치적 집단이 개인을 동원하고 조직하는데 있어 인터넷이 활용됨으로써 집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올슨식으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의 회원(membership)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대한 집단들은 불완전한 운명을 갖고 있는데, 거대한 집단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

1) 스티브 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터넷을 설명하는 이론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기존의 제 학문이론들을 통해 인터넷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Steve Jones 1999)

람들을 주요한 동원 대상으로 삼고, 공공재 획득을 주요한 목표로 삼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도 집단적인 성과물(정책)을 공유하는 많은 수의 무임승차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올슨의 이론을 반증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형성조차 될 수 없고, 유지조차 힘든 집단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형성과 유지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설명하는데 인터넷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인터넷은 이러한 집단들의 형성 및 유지에 접합되는 것인가? 인터넷상에서 순식간에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집단행동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현재 발생하고 있고, 기존의 오프라인 집단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유지해나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안티현대(anti-Hyundai)', '이동 통신 요금 인상 반대 운동', 주부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분유가 격 반대운동'과 같은 집단행동들이 순식간에 웹 상에서 출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환경, 시민일반(Common Cause와 같은 시민단체), 소수민족(인디언 집단), 동성연애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오프라인 집단들은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공적 어젠다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정연정, 2001a).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올슨의 집단행동 논리는 인터넷 시대에 다시 한번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위에서 제시된 사례들이 올슨의 이론적인 전통을 완전히 변화시키기에 미약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론적 변화가능성을 타진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차후 이루어질 제 시도들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이론에 대한 재고 및 인터넷 시대의 정치적 현상을 이해한다는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절에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변화를 논의함에 있어 올슨 이론의 어떤 쟁점들이 관련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즉 올슨 집단 행동 논리 중 어떠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가를 구별해내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쟁점을 중심으로 인터넷이 과연 그러한 집단행동의 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가를 논의한다. 예를 들어 집단형성 과정에서 인터넷은 어떠한 도구로 활용되며 집단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함에 있어 인터넷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또한 올슨이 지적하고 있는 무임승차(free-riding)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 인터넷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 역시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올슨의 집단행동 이론의 주요 요소들이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인터넷이 과연 집단행동의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자원일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집단행동의 형성 및 유지와 관련되어 인터넷이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한 논의이며, 이를 통해 대안적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II. 맨서 올슨(Mancur Olson)의 집단행동 논리의 쟁점

본 절에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올슨의 집단행동 논리의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올슨의 집단행동 논리의 주요 내용들이 다루어진다. 즉 이는 올슨의 집단행동 이론 중 어떤 문제를 인터넷과 접합시켜 논의할 것인가를 밝힘으로써 다음절에서 이루어질 논의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올슨의 집단행동이론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모든 집단들이 동일한 형성과정을 거치는가? 즉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단은 자유로운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지며 상호간의 힘이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다(Truman, 1951). 즉 사회구조의 변화(농업사회→산업사회)로 그러한 구조에 적합한 집단과 결사체(association)가 자유롭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다원주의자들의 논의에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 올슨의 집단행동 이론이며, 이후 이것은 엘리트주의적 다원주의(Elastic Pluralism)라고 불려지는데, 올슨의 경우는 집단의 형성이 균등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 번째 올슨 이론의 주된 쟁점은 집단유지에 있어 규모가 작은 집단과 규모가 큰 집단에서 발견되어지는 상이성이다. 이는 공공재(public goods)를 추구하는 집단은 그 규모에 따라 다른 집단 유지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는 바로 거대한 규모의 집단이 왜 소규모의 집단에 비해 집단 유지의 가능성이 낮은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올슨은 이러한 대규모 집단의 낮은 유지 가능성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그 이유를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집단에 참여하게 되고 이들은 무임승차자(free-rider)로 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참여하지 않고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넷째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 규모의 집단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즉 올슨은 무임승차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1. 집단형성의 불균등성

올슨의 집단행동 논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집단 참여 동기 및 이에 대한 경제적인 해석이다. 개인은 자신의 이해를 집단의 이해에 투영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에 참여하게 된다. 합리적인 개인의 계산적 고려가 모든 집단행동의 주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Olson 1971, 7-8).

어떤 집단들은 공공재를 획득하기 이전에 공식적인 형태의 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한 집단 형성의 비용은 매우 높다. 즉 역사가 짧은 집단의 경우 더욱더 많은 공공재를 획득하고 기존의 집단과 동등한 선상에서 공공재 획득을 추구하려면 그 만큼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Olson 1971, 22-3). 집단형성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의 참여로부터 얻게 될 이득을 초과하게 되고 합리적인 개인은 이러한 집단형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올슨의 입장은 집단형성의 문턱이 매우 높고, 집단형성에 필요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형성조차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집단형성이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환경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의 비용부담을 절감하지 못하는 집단의 경우는 형성조차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올슨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집단 형성을 위해 어떻게 개인의 참여 비용을 낮추고 집단의 공적 목표로부터 얻는 개인의 이득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쟁점을 통해 우리는 인터넷이 새로운 집단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집단 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낮춤으로써 개인들에게 더욱더 많은 이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구조의 변화가 자유로운 집단형성의 독립변인이 될 수 없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은 과연 이러한 집단형성의 불균등성을 극복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인터넷의 어떠한 특성이 이러한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가의 문제가 다음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2. 집단유지의 차이

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집단의 규모와 집단유지 사이의 상관관계일 것이다. 거대한 규모의 집단과 소규모 집단 모두는 공공재(public goods) 획득을 목표로 삼아 활동한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을 참여자로 충원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집단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집단의 규모에 따라 집단유지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Olson 1971, 20). 여기서 집단의 유지란 한 집단이 얼마만큼 공공재 획득을 위해 개인의 참여를 더욱더 많이 동원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동원은 개인의 참여비용과 공공재 획득을 통해 얻는 이득사이의 즉 비용과 이득 사이의 관계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가 큰 집단과 소규모 집단은 차이가 있고, 소규모 집단일수록 개인 회원에게 공공재 획득의 매력을 더욱더 강하게 호소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Olson 1971, 36).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참여는 결국 집단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참여 현상이 제대로 알려지는 경우 개인의 참여가 전체 목표 획득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소규모 집단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대규모 집단에 비해 더욱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올슨이 주장하는 집단의 규모와 집단유지간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한가지 쟁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인터넷이 집단 규모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단 유지에 매우 중요한 사안은 어떻게 한 집단이 공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동원하며, 이들이 집단

활동으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의 인터넷 자원을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3. 무임승차(Free-riding)

올슨의 논의에 따르면 규모가 큰 집단의 경우 소규모 집단에 비해 더욱더 많은 무임승차자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즉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거대한 규모의 집단이 소규모 집단에 비해 집단 유지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거대 규모의 집단 내에 더욱더 많은 수의 무임승차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임승차자들은 집단의 공공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공헌하지 않는 개인들이며 거대한 규모의 집단인 경우 이러한 공헌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Olson 1971, 45). 집단의 공공 목표를 추구하고 이에 적합한 참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집단 내의 다른 회원들의 참여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의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 타인의 참여에 대한 확인 절차 과정에서 집단의 공식·비공식적인 의사소통과 조율작업(coordination)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가 큰 집단일수록 의사소통과 조율작업이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집단내의 의사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 무임승차의 가능성은 더욱더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 회원들은 합의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다른 개인 회원들과 협상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들의 협상은 집단행동의 부담이 널리 공유될 때까지 지속된다(Olson 1971, 46).

우리는 이상과 같은 올슨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모든 집단들은 개인의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적인 의사소통과 협의과정을 주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개인에게는 참여비용의 문제를 그리고 집단에게는 참여 과정을 총괄하는 비용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올슨이 제시한 바와 같이 거대 규모의 집단인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은 더욱더 증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인터넷이 이러한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에는 무임승차의 가능성을 축소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확대시켜주고 의사소통에 기반 한 합의와 협상과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수단일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4. 선택적 인센티브(Selective Incen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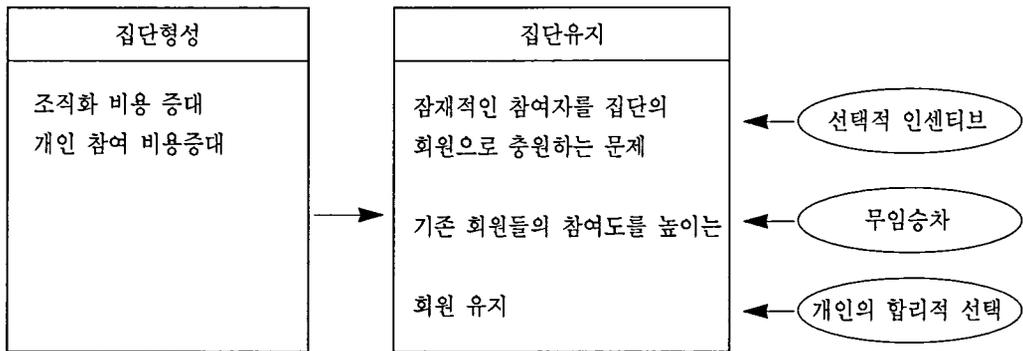
집단들이 무임승차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하는 정기적인 의사소통과 합의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기적인 의사소통과 합의체계는 집단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고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개인의 참여를 보다 빈번하게 할 수 있는 대안 역시 모색되어야 한다. 올슨의 논의에 따르면 합리적인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중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택적 인센티브이다. 선택적 인센티브란 집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참여하지 않는 개인을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이고, 참여 여부에 따라 배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Olson 1971,

51). 올슨이 주장하고 있는바에 따르면 대규모 집단의 경우 그들의 동원력이나 능력이 소규모 집단에 비해 낮기 때문에 집단 회원에게 '선택적 인센티브'(selective incentive)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의 동원력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 올슨이 주장하는 '선택적 인센티브'란 결국 참여와 비참여를 구분함으로써 참여를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택적 인센티브는 부정적(negative), 긍정적(positive) 인센티브로 구분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성격을 갖는 인센티브는 강제행위를 뜻하고, 긍정적 인센티브는 물질적, 사회적 인센티브로 나뉘어질 수 있다(Olson 1971, 62-4). 특히 사회적 인센티브는 동일한 성격과 지위를 갖고 있는 개인들의 소집단이 비참여자에게 가할 수 있는 사회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압력이 거대한 규모의 집단의 동원력 확보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Olson 1971, 60-81).

이러한 올슨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선택적 인센티브' 논의에 기반 하여 어떻게 인터넷이 집단의 '선택적 인센티브 제공에 활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터넷은 긍정적, 부정적 인센티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의미 있는 자원인가의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인터넷이 과연 참여자와 비참여자들의 구분을 위해 제공되는 물질적 인센티브와 사회적 압력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림1〉 올슨 집단행동의 논리의 쟁점



III. 인터넷과 집단행동의 제 문제

1. 집단형성(Group Formation)문제와 인터넷

집단들은 집단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집단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의 이해는 집단적인 힘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집단의 형성에 참여해야 한다.²⁾ 올슨은 집단행동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문제를 언급한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러한 거래비용은 집단의 형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집단의 경우 공공재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비용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파편화된 개인의 이해를 조직화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Olson 1971, 47-48).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집단은 집단형성에 드는 조직화 비용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이러한 비용이 증가되면 될수록 참여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개인들간의 의사소통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있어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인터넷이 갖고 있는 다대다(many-to-many) 기능은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의사소통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사람들을 한 집단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인터넷의 효과를 검증해주는 최근 사례로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단일현안집단(single issue groups)의 형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Bimber 1998).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운동',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스크린 쿼터감시단',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과 같은 현안 운동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안집단의 성격은 이슈별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이러한 집단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올슨이 언급한 조직비용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고, 특히 사회적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켜야 하는 비용 역시 감수해야 했다(Lee 1998).

집단형성에 필요한 의사소통 비용과 사회적 인지도를 높여 대중에게 접근하기 위한 기획비용을 동시에 절감하는데 있어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할을 설명해주는 사례로서 미국내의 중국학생들의 조직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리 타이거(Li, Tiger)에 따르면 1989년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외부에서 지원하고, 중국의 이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제정을 위해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는데, 미국 160개 대

2) 이러한 입장은 벤틀리나 투루먼과 같은 전통적인 집단이론가들의 논의에서도 발견되는데, 즉, 개인의 이해는 집단적으로 표출될 때 의미를 갖게 되고, 개인의 이해는 집단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Bently, Arthur(1908)와 Truman, David(1951)를 참조.

학 내 43,000명의 중국 학생들이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뉴스 그룹과 이메일을 통한 집단행동을 확산시켜나갔다. 타이거의 주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운동은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Li 1990).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최근 '이동통신 요금 인상 반대 운동'이나 '인터넷 등급제 반대 운동' 등 새로운 이슈들을 중심으로 집단의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화는 네티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사회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집단행동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참여 인원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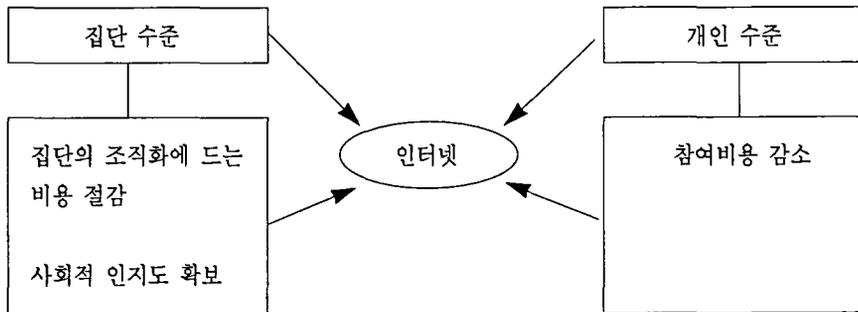
앞에서 제시된 인터넷은 몇몇 개인의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전국적인 집단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인 규모의 집단 형성을 가능하게 함에 있어 인터넷은 잠재적인 참여자들에게 특정이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참여 개인들간의 빈번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은 올슨이 주장한 조직화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개인들을 집단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중국 학생들을 순식간에 조직화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단의 형성은 과거에 비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올슨의 논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집단형성의 높은 장애물은 인터넷을 통해 점차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특히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직화의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참여를 통해 얻는 개인의 이득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으로써 얻는 이득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비용과 이득에 대한 계산은 올슨이 주장하는 집단행동의 논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인터넷은 이러한 개인의 참여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정보습득과 비슷한 이해를 갖는 사람들의 참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비슷한 이해를 갖는 개인들의 집단화를 용이하게 한다. 하워드 라인골드(Howard Rheingold)가 주장한 것처럼 인터넷은 동일한 이해를 갖는 개인들의 집단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이해에 대한 상호조율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으면서 이를 통해 필요한 집단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Rheingold 1993).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적 의사소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올슨이 지적한 집단형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공공재를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집단의 참여에 들이는 비용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집단적인 측면에서 한 집단의 형성에 드는 조직화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터넷이 효과적으로 접합될 수 있다. 집단형성을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산재해 있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에게 일정한 양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의사수렴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인터넷은 개인 대 개인, 집단 대 개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집단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은 주요한 선전수단이 되고 있다. 정연정의 연구

조사³⁾에 따르면 집단 형성이 막 이루어진 집단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선전에 주력하는 경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인터넷이 집단형성에 필수적인 활동(선전을 통해 인지도 확보)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집단의 형성에 접합된 인터넷의 주요한 부분은 이메일, 전자게시판, 토론방 등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집단의 홈페이지내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기술적 장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장치들을 이용함으로써 집단형성이 더욱더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쉬운 집단형성이 반드시 집단의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집단형성이 용이해지기는 했으나 이러한 집단의 경우(특히 네트 상의 현안집단) 쉽게 소멸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형성과 유지는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행동의 문제 역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집단의 유지와 관련된 집단행동의 제 문제들을 인터넷 자원과 관련지어 논의함으로써 인터넷이 어떻게 집단유지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그림2〉 집단형성과 인터넷의 관계



2. 회원 충원(member recruitment)과 인터넷 - 선택적 인센티브 문제

집단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난 후 집단 유지를 위해 제기되는 사안은 집단의 지도부가 어떻게 잠재적인 회원들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들을 집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전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집단유지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회원 충원과 관련하여 올슨은 기존의 다원주의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논의를 제시한다. 올슨에게 있어 개인은 이해의 공유만을 갖고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Olson 1971). 즉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개인은 자신들이 참여를

3) 정연정(Chung, YOUNGCHUNG) 1999.

통해 얻는 이득이 참여비용을 초과할 때 행동을 한다. 많은 정치적인 결과물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의 회원과 비회원들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한 규모의 집단은 일 개인의 참여가 집단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단지 집단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올슨의 집단행동에 대한 논의는 집단유지를 위해 필요한 회원충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올슨은 이러한 개인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올슨의 선택적 인센티브란 물질적, 사회적 인센티브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의 리더들은 회원을 충원하고 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인센티브 제공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정보습득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는 인터넷은 집단으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양의 정보를 동일한 비용으로 개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는 회원들에 대한 선택적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로젠베르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커먼코우즈(Common Cause)의 4.6% 회원들이 커먼코우즈가 제공하는 정치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집단에 참여한다고 밝힌바 있다(Rothenberg 1992, 67).⁴⁾ 또한 크노크(Knoke)의 분석에 따르면 출판물, 데이터 서비스, 연구결과물과 같은 정보 인센티브가 회원 가입을 결정하도록 하는 요인중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Knok 1998). 이러한 정보는 올슨이 언급한 물질적 인센티브와 사회적 인센티브 양자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는 개인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보를 개인의 참여와 교환하여 제공함으로써 물질적 인센티브의 성격을 갖게되기도 하고, 집단의 활동과 성취에 대해 개인에게 알림으로써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결국 선택적 인센티브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집단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정보들은 회원가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심화된 형태의 정보를 집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특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를 통해 참여와 비참여의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선택적 인센티브로서의 정보 전달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우편을 통한 정보전달은 전달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단위당 비용이 증가하는데 비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은 가능한 많은 회원들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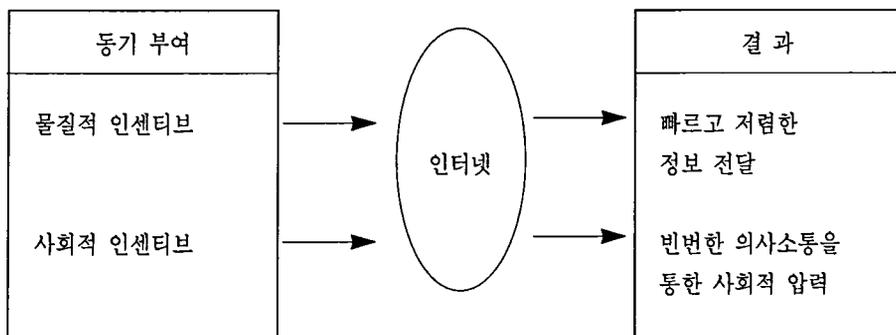
물질적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의사소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집단 회원들이 서로의 활동에 대해 인식할 수 있고, 서로의 경험

4) 로젠베르그의 이러한 분석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매우 적은 수의 회원들만이 정치정보 습득(선택적 인센티브)을 위한 커먼코우즈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이유 한가지만을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정보습득을 선택적 인센티브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집단에 참여하는 회원의 수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고 이들간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를 이용한 잦은 의사소통과 회원들간의 의견과 입장을 조율하는 것과 관련되며 개인이 쉽게 다른 회원들의 이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토론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잦은 의사소통과 여타 회원들의 활동 상황 및 입장에 대한 인식과 조율은 사회적 인센티브를 형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연대감 형성이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 연대감이 빈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터넷이 집단의 사회적 연대감과 개인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인터넷은 집단의 입장에서 회원충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올슨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집단유지를 위해 선택적인 인센티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터넷은 이러한 선택적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라는 속성이 물질적, 사회적 인센티브 제공에 매우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질적 인센티브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 특히 선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인터넷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개인들간의 의사소통을 빈번하게 함으로써 이들간의 연대감과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고, 개인들간의 참여를 위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터넷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러한 연대감은 집단활동의 현황과 과정 그리고 긴박성의 문제들을 회원들이 공유할 때 강화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터넷은 이러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인센티브의 제공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림 3〉 회원 충원과 인터넷의 관계



3. 회원 유지(member retention)와 인터넷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무임승차 그리고 인터넷

인터넷과 집단유지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회원들을 어떻게 계속 집단의 회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적극적인 참여자로 유도하는가의 문제이다. 개인은 집단의 회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나 별다른 참여 없이 회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테리 모오(Terry Moe)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습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즉 개인이 집단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Moe 1980). 오히려 이들은 집단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추구하는 대신 자신이 집단 회원으로 계속 남아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집단회원으로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계산을 통해 집단의 회원으로서 계속 남아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참여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더욱더 많이 확보하게 되고, 자신의 이해와 집단의 이해가 적절하게 부합될 수 있을 때 집단 내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은 개인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보전달의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하는 인터넷은 개인들에게 습득 가능한 집단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집단의 주요 활동 및 집단이 관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의 진행 상황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집단의 입장에서조차 이러한 정보를 수시로 빠른 시간 내에 인터넷을 통해 개인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드는 비용도 매우 저렴한 편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이해와 집단의 이해를 조율할 수 있는 계기를 더욱더 빈번하게 갖게 되고 집단의 이해가 자신의 이해에 부합되는 경우 집단의 회원으로서 계속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결정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은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은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인터넷 전용선)을 지불하고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어디에서든지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환경운동 단체들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정보를 개인에게 전달하고 있다.⁵⁾ 이러한 단체들의 홈페이지 구성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집단이 관계하고 있는 정책의 실행과정, 집단의 다양한 활동 및 그 성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다. 이러한 홈페이지 구성은 단순히 우연

5) 해당 단체들은 아래와 같다. 이는 필자가 수행한 한 연구에서 개별 단체들의 웹사이트를 분석할 결과 발견한 사항중의 하나이다: American Conservation Association, American Forest, American Resource Group, Clean Water Action, Concern, Coalition Against Pipeline Pollution, Defenders of Wildlife, Earth Share, Coast Alliance 등 총 47개 미국의 환경 단체, 이에 대해서는 정연정 (Chung, YOUNGCHUNG 1999)을 참조.

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개인들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이들이 계속 회원으로 집단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집단의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집단의 정보 콘텐츠 구성이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는 바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집단 회원들을 보다 더욱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회원 유지와 관련하여 인터넷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회원 유지 활동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한 의사결정은 결국 집단의 다양한 종류의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함에 있어 집단은 많은 양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즉 과거에 집단들은 다양한 종류와 많은 양의 정보를 개인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우편이나 전화는 접촉하는 개인 회원의 수에 따라 증감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단위당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러한 활동을 위해 들이는 집단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리스트서브(List Serve)를 통한 메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한번에 수많은 회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 서비스는 다양한 시간대에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비용도 매우 저렴한 편이다. 집단들은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이외에도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수시 정보들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인터넷은 의미 있게 접합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은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을 돕는 정보를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집단의 거래비용을 삭감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회원들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관리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단의 리더 입장에서 보면 회원들이 집단을 떠나는(exit)을 방지하기 위해 갖은 의사소통을 해야한다. 따라서 이들은 비용이 저렴한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다수와 짧은 시간 내에 메모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은 집단 구성원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단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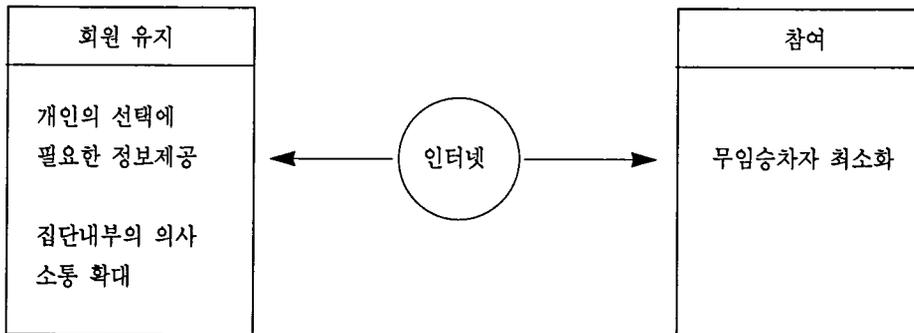
따라서 인터넷의 저렴한 비용, 다대다 의사소통과 같은 특성은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개인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소속감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경우 개인은 한 집단 내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집단의 회원유지 가능성역시 증대될 수 있다.

집단유지와 관련된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개인 회원을 보다 참여적인 회원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올슨이 주장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집단의 경우 별다른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이득을 얻는 개인이 많고, 이러한 개인의 무임승차문제는 집단유지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lson 1971, 45).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는 개인들이 다른 개인의 참여 여부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별다른 부담 없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증대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집단의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개인이 다른 사람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집단은 무임승차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감독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개인들이 다른 개인들의 참여여부를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단에 참여하는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참여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참여 현황을 알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비용 부담이 매우 적고, 집단을 매개로 하여 타 개인들의 참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의사소통의 거래 비용의 감소는 개인들이 얻어들일 수 있는 타 회원들에 대한 정보의 양을 증대시키고, 이들간의 이해 조율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집단이 무임승차의 가능성을 축소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무임승차자에 대한 집단의 감독(monitoring)기능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기능은 간접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집단들은 중요한 집단 활동에 대한 개인 회원의 참여여부를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참여와 비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을 인터넷상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 회원의 범위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최근 집단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반응조사를 통해서도 구현되고 있는데 집단은 이를 통해 비참여자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집단들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 회원들의 참여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 즉 인터넷은 어떤 개인이 집단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관심에 기반하여 집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전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드는 집단의 감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림 4〉 인터넷과 회원 유지 및 참여와 인터넷의 관계



4. 요약

이상에서는 인터넷과 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의 관계를 크게 집단형성과 유지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올슨의 집단행동 논리가 개인들의 이해를 조직하고 표출하는 초기적 단계로서의 집단형성과 집단 유지 단계에서 제기되는 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이 어떻게 이 두 과정에 접합되는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에서 전개된 논의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터넷은 집단형성에 드는 조직화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인터넷은 개인과 집단 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집단형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인터넷은 참여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비용과 이득 계산을 중심으로 집단형성에 참여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집단적 수준에서 인터넷은 조직화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순식간에 지리적으로 산재해 있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의 이해를 결집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집단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사회적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집단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은 집단 유지와 관련된 제 활동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키고 있다. 집단유지는 크게 새로운 회원 충원과 회원 유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 개인에게 집단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동기부여(선택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단은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개인에 전달함으로써 일종의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들간의 연대감에 기반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인터넷은 정보전달과 잦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사회적 압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회원 유지와 인터넷 역시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데 기존의 회원들이 집단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에 있어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임승차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드는 집단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특히 무임승차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집단활동은 회원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유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데, 인터넷은 집단과 개인의 비용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함으로써 집단과 개인간의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인터넷의 저렴한 비용, 빠른 속도, 다대다 의사소통이라는 특성이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기존의 이론과 인터넷이 어떻게 접합되고, 인터넷의 사회·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인터넷과 집단행동의 관

계를 기존의 이론(집단행동 논리)에 입각하여 논의한다.

올슨의 논의는 어떤 집단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더 용이한 환경에서 형성될 수 있고 집단의 형성은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의 이론은 집단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집단들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올슨 이론에 입각하여 우리는 한가지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집단의 운명은 개인의 참여와 비용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와 비용의 문제는 집단이 어떠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터넷은 현시점에서 집단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은 가능한 많은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비용을 저비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집단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의 쌍방향성, 저렴한 비용, 그리고 지리적 포괄성은 집단형성과 유지 활동에 접합되어 합리적인 개인의 참여에 대한 선택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집단의 조직화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집단의 능력과 재정적 역량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Davis 1999) 기본적인 인프라만으로도 집단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 한 연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집단형성과 유지가 이루어질 때 세련된 기술적 장치는 집단들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된 변수가 아니며, 오히려 개별 집단의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가 얼마만큼 빈번하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가 즉, 집단의 의지(willingness)가 얼마만큼 인터넷을 통해 발휘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연정 2000). 따라서 새로운 기술 자원인 인터넷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풍부한 재정자원과 높은 사회적 인지도를 보유한 집단이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해야하고, 개인 회원을 더욱더 많이 충원하여야 하는 역사가 짧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인터넷 자원은 집단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켜, 집단형성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슨의 집단행동 논리에서 제시되는 집단형성에 있어서의 불균등성의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

집단형성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집단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즉 인터넷은 올슨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집단이 갖는 문제들, 예컨대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집단의 활동에 접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임승차자들을 감독하고 이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전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단 내의 의사소통과 개인 회원들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위해 필요한 개인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을 확장하는데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은 자유로운 집단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집단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올슨이 주장하는 집단간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추인 하는 집단행동의 제 문제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며, 집단형성과 유지에 있어 인터넷의 효능감을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정연정. 2000. "미국의 시민이익집단 활동과 인터넷." 『정치학회보』 제34집 4호.
- 정연정. 2001. "인터넷과 시민운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세미나.
- Bently, Arthur. 1908. *The Process of Government*.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Bimber, Bruce. 1998. "Toward an Empirical Map of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Internet." Annual Meeting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A: Boston.
- Boncheck, Mark. 1995. "Grassroots in Cyberspace: Recruiting members on the Internet."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llinois: Chicago.
- Chung, Yunchung. 1999. "Citizen Interest Groups and the Internet: Does the Internet Really Matter For Citizen Interest Group Mobilization?" Ph. D. dis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 Davis, Richard. 1999. *The Web of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Knok, David. 1998. "Incentives in Collective Action Organiz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3, 311-329.
- Moe, Terry. 1980. *The Organization of Interests: incentives and the Internal Dynamics of Political Interest Group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ee, Beth. 1998. "Interest Group Media Strategies."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llinois: Chicago.
- Li, Tiger. 1990.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s and the Chinese Students in the U.S." *Information Society* Vol. 19, 125-37.
- Olson, Mancur. 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heingold, Howard.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f the Electronic Frontier*. MA: Ma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Rothenberg. 1992. *Lawrence, Linking Citizens to Government: Interest Groups Transformed*. Boulder Co.: Westview Press.
- Sproull, Lee & Kesler, Sara. 1993. "Computers, Networks, Building a New Participatory Medium."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37 No.1, 39-51.
- Steve Jones. 1999. *Doing Internet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 Truman, David. 1951. *The Governmental Process*. NewYork: Alfred A. Knof.

Policy Networks for Transformative State Capacity

Min Kang and Wooc-Kyung Kim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question: how global capital represented as the IMF and World Bank exercises its power over the policy networking among the state, business and organized labour through the state capacity for management of financial crisis. For the sake of analysis, we put for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has three dimensions consisting of hegemonic discourse, strategic relations and the structural context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analysis leads to clarifying the three dimensions of dialectical process of power relations in the policy networking implicated by government, business and labour. As an empirical referent, Presidential Tripartite Commission is taken. The case review reveals that global capital exerts its power over the policy networking surrounding the Commission through the state's restructuring project imposed by the IMF and World Bank.

The Internet and Logic of Collective action: Focusing Mancur Olson's logic of Collective Action

Younchung Chung

This paper can be viewed as one of attempts to identify actuality and contents of the collective action, which makes connection between the Internet and logic of collective action theorized by Mancur Olson. Through initial concepts of Olsons' collective action theory, for example free-riding and selective incentives, how the Internet is involved with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groups, and the Internet modifies these concepts? These are major concerns of this paper.

First of all, the Internet makes lower costs for forming groups and monitoring for free-riders. Hence, it lowers the threshold to form groups, and the formation can be placed at anytime and anywhere. Furthermore, dilemma of large-size groups, which expressed as difficult to form, are more likely to be formed due to the Internet. To constantly maintain a group, solving the problem of free-riding and recruiting new members are very important. In other words, the Internet is one of vehicle for facilitating communications among members, which are necessary for monitoring and making them more participatory. In addition to this, the Internet seems to be useful enlarging channels of communication by getting more recognition and being participatory.

In the maintenance, recruitment of new members are crucial tasks for every group as well as converting free-riders to participants. The Internet can provide various types of incentives-material and social-to recruit new members, and these incentives make the recruitment more effective.

Consequently, the Internet can be regarded as an alternative by enabling form groups, and overcome existing disparities among groups. Therefore the disparity, Olson claimed, and matters causing the disparity seem to be solved in a certain way. Moreover, in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groups, recruitment of new members as well as keeping the members in the group are more likely to be easy and effective.

Unfortunately, Mancur Olson seemed not to prospect developmental dir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was extremely for Olson to recognize influence of the technology on collective actions. In the era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Internet becomes a Frankenstein, which Olson never dreamed.; we have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question how the Internet is able to change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in near future.

The Presence of the Vicious Cycle among Civic Engagement, Social Capital (Trust), and 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

Soo Chan Jang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measure the level of associational life, social capital (trust) and 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and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se variable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utilized time-series comparisons and cross-national analysis using World Value Survey Data. The significant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Korea differed from Western democracie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Korea proved contrary to the general case that the more people become involved in civic associa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the more they will trust fellow citizens and hav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institutions.

Second, as in advanced democracies, education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in explaining Koreans' social and political engagement level, but in contrast, affluent, highly educated Koreans were more likely to distrust political institutions. Lastly, although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creased from 1981-1997, interpersonal trust and 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declined. In sum, Korea has undergone a "downward cycle" in terms of social capital during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